



남방큰돌고래들의 유영 1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 앞바다에서 한무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172개 마을 중 여성 이장 고작 1명

도양성평등위 권고로 이·통장 성별 분리 통계 공개
부녀회 등 마을 중심 일꾼인데도 의사 결정선 소외
“운영위·개발위 등 의사 결정 기구 참여부터 확대를”

제주 지역 172개 마을 이장 중에서 여성은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2024년 정책 개선 권고 사항으로 제주도가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통장 성별 분리 통계 내용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읍면 마을의 이장은 172명(제주시 96, 서귀포시 76)으로 이 중에서 여성은 제주시 한경면 금동리 이장 1명이 전부다.

여성 이장 비율이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동 지역 여성 통장 비율은 39%로 이장보다는 높다. 전체 587명(제주시 515, 서귀포시 72)의 통장 중에서 여성은 제주시 220명, 서귀포시 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경우 도 별도 마을규약이 있는 자연마을 통장 중에서 여성이 선출(추천)되는 사례는 동에서 실시하는 공개 모집 방식의 임명과 비교할 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여성들이 부녀회 등 마을회 행사에서 중심적인 일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마을의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마을의 의사 결정권과 여성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도 제주는 여성 이장 비율이 전국 평균(2022년 12월 기준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제주 지역 여성단체 주도로 2019년 ‘성평등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해 성평등마을 규약 표준 조항을 마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인 배경도 거기에 있다.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14개 마을에서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 대표성을 높

기 위한 마을규약(항약) 개정 논의가 이어 왔고 일부 마을에서는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고 했다. 올해도 제주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YWCA가 협력해 성평등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희주 제주여성회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개발위원회를 보면 남성 위주로 당연직을 구성하는 마을이 많은데 특정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여성들이 마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도록 마을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내일부터 기온 ‘뚝’... 오늘보다 3~8℃ 하강

3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영향으로 3일 기온이 전날보다 3~8℃ 낮

것이라고 1일 예보했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2℃, 낮 최고기온은 18~19℃로 예상되지만, 이튿날인 3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7~8℃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하강 폭이 더 커 10~14

℃에 머물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특히 3일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2일에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9℃ 가량으로 크고, 3일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일부 구간에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 사이 기온이 다시 낮아지면서 살얼음으로 변할 수 있으니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감속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민관협력 ‘제주 꽃자왈 서포터즈’ 모집 4일 집중 캠페인 전개... QR코드 신청도 가능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이 제주의 허파이자 지하수 흡수원인 꽃자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꽃자왈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재까지 서포터즈 약 300명이 활동 중이며, 꽃자왈공유화재단은 민관 협력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오는 4일 제주꽃자왈도립공원에서,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은 교래자연휴양림에서 꽃자왈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신청은 산양큰엉굴, 동백동산, 환상숲꽃자왈공원, 비자림 등 주요 꽃자왈 지역 매표소와 입구에서 가능하다.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큐알(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에게는 연간 꽃자왈 교육과 홍보 행사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도는 2026년부터 3년 주기로 ‘꽃자왈 방문의 해’ 행사를 추진하는 등 서포터즈 활동 혜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꽃자왈 방문이 늘어나면서 꽃자왈을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국기기자 haru@ihalla.com

외국인 보유 제주 토지·주택 소폭 증가

상반기 토지 2183만㎡로 작년 말보다 0.6% ↑

소유 주택은 1722호로 작년 말보다 2.3% 늘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지역 토지가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1500여명이 도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면적은 2183만3000㎡로 전국 보유토지(2억6565만㎡)의 8.2%를 차지했다.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5891억원이다. 2023년 말 대비 면적은 0.6%, 금액은 2.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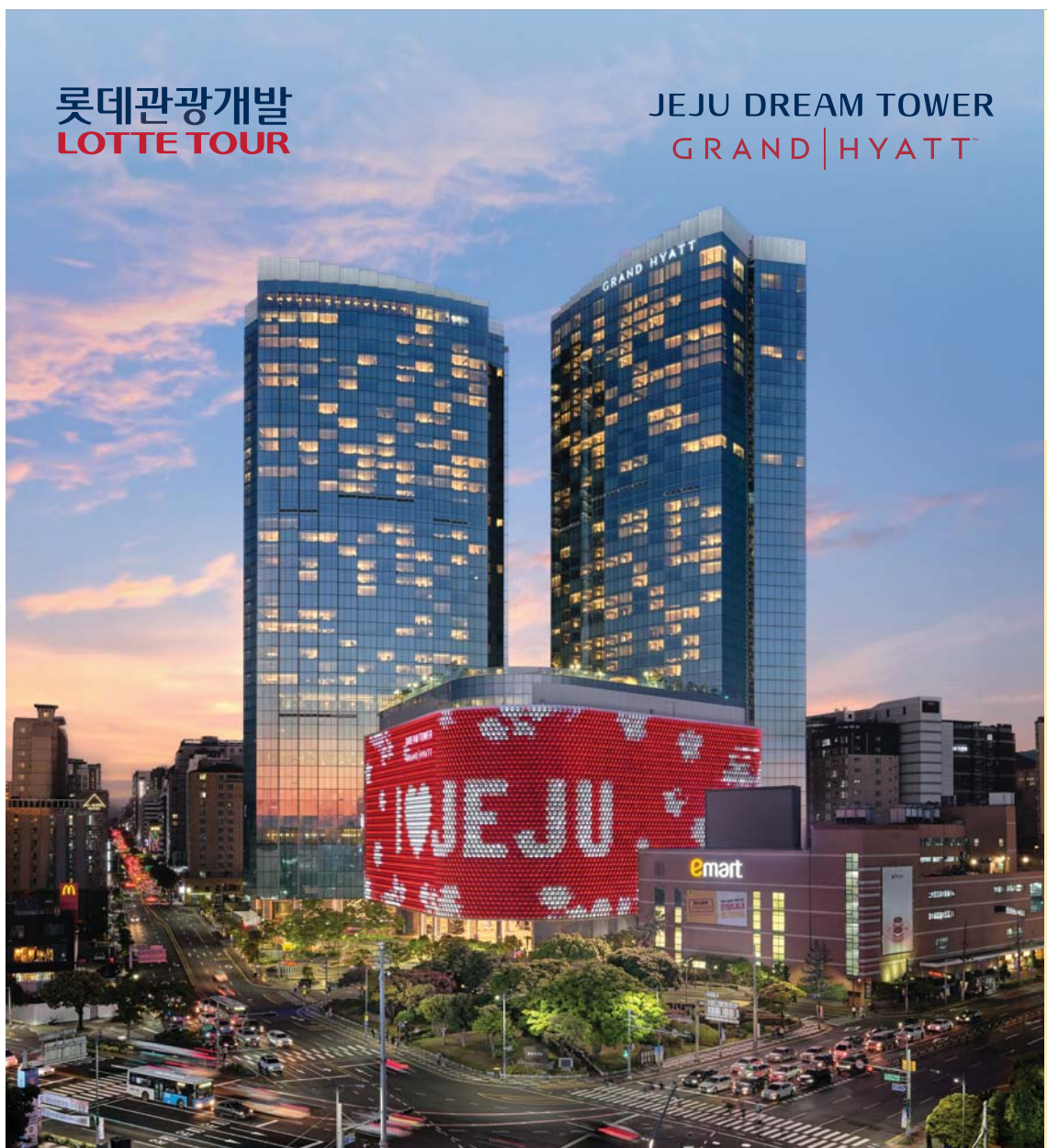
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13년 986만㎡에서 2014년 1570만

㎡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2059만㎡로 늘어났고 2020년 2191만㎡로 완만하게 증가한 후에는 소폭의 증감을 유지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528명이 1722호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외국인 소유주택(9만5058호)의 1.8%다. 국토부가 외국인 소유 주택 공표를 시작한 2023년 말 기준(1684호)에 견줘서는 2.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179호, 단독주택 543호로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같은 선단 운반선, 금성호 침몰사고 지켜만 봐... 4면



제주 드림타워 4주년 특별 이벤트

세계인이 찾는 제주의 대표명소로 자리할 수 있게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 기간 2024년 12월 2일 ~ 13일 • 대상 제주도민 누구나 • 당첨자 발표 2024년 12월 18일

EVENT | 제주 드림타워 4주년 축하 메시지 남기기

제주 드림타워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며, 4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1,600명에게 그랜드 하얏트 제주 숙박 및 레스토랑 식사 혜택을 드립니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
1박 숙박권 (400명)



그랜드 키친 뷔페
디너 식사권 (400명)



포차 레스토랑
20만원 식사권 (800명)



이벤트
참여하기

• 참여 방법 QR 코드를 스캔하여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하신 뒤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벤트 문의 1533-1234 | 제주 드림타워 홈페이지 www.jejudreamtower.com